

# 이 성탄에

한국 지역 대표  
한인상장로



두 가족의 교회 인도와 4대 프로그램의 완성과 6개월간의 비측 등의 목표를 지역 전체의 달성목표로 삼아 부푼마음으로 1981년을 마치고, 지금은 성탄의 종소리를 들으며 지난 열두달, 삼백 예순 다섯날의 행적과 또 다른 목표로 전도해야 할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을 해야 하는 자리에 서있습니다.

귀족 한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감람나무 열 두 그루를 심고 종들에게 망대를 짓고 튼튼하게 담을 쌓아 원수들이 쳐 들어와 짓밟지 못하게 하라고 명했습니다. 일을 하던 종들이 힘이 겨워하다가 마침내 불평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태평 세월에 망대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라고 자기 합리화를 꾀한 후 맡겨진 소임을 게을리했습니다. 그러는 중 원수들이 몰려와 포도원을 짓밟아 부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교리와 성약 101편 44절에서 부터 소개되는 순종의 교훈을 비유로 가르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속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좇아 살고자 하는 우리가 던지고 선 땅이 세상이므로 매일 매일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

늘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옳바른 삶의 길, 곧 주님의 말씀이며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다.

세상에서 만들어 낸 성탄 축하의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작고 잔잔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은 없습니까? 휘황찬란한 네온과 장식 등이 너무 밝아 주님이 계신 곳을 밝히는 별이 빛이 잃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되 높은 궁궐의 안락한 처소에 그 출생의 터를 잡지 않으셨습니다. 누추한 마굿간에서 강보에 쌓인 채 박사들의 인사를 받으셨던 주님은 지극히 보잘것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은 부활하시어서 지금 살아 계시고 끊임없이 어려운 때를 위해 준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난해에도 성탄을 축하했고 또 지난 지난 해에도 성탄을 축하하지만 금년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거듭나면서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탄을 축하하며 맞이하자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

## 지 호머 더럼 장로 새로운 부름을 받음



1976년에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이 된 지 호머 더럼 장로는 지난 10월 연차 대회에서 정원회 회장단의 일원으로 지지받았다. 이로써 1981년 7월에 닐 에이 맥스웰 장로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으로 부름받음으로써 생긴 결원이 채워지게 된 것이다.

더럼 장로는 솔트레이크시티 병원에서 심장 절개 수술을 받고 회복기에 있던 중 지지받고 새로운 부름을 받아들였다. \*

## 포르투갈 최초의 스테인크 1,800명의 회원으로 조직됨

이베리아 반도에 최초로 복음이 전파된 지 6년 반 만에 포르투갈 최초의 스테이크인 리스본 포르투갈 스테이크가 조직되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이며 유럽 서부 지역 집행 관리자인 제임즈 엠 패러모어 장로가 스테이크를 조직하기 위해 리스본 시네마 극장에서 개최된 특별모임을 감리했다. 이 특별 모임에는 1,234명의 기쁨에 찬 포르투갈 성도들이 참석했다. 패러모어 장로는 지역 대표인 오웬 제임즈 스티븐슨 장로와 최근 포르투갈 리스본 선교부장에서 해임된 알렌 케이 코엘 형제의 도움을 받았다.

새로운 스테이크에는 리스본, 아마도라, 알마다, 바레이로, 카셀, 카스카이스, 세투발 등에 있는 단위 조직을 포함해서 다섯 와드와 다섯 지부가 있다.

1,804명의 스테이크 회원 가운데 160명 이상의 맬기세덱 신권 소유자가 있다. 호세 마누엘 다 코스타 산토스 형제가 스테이크 부장으로 아더 마누엘 벤투라 데 카발호 형제와 코리 윌리엄 뱅거터 형제가 각각 그의 보좌로 부름을 받았다.

선교사가 최초로 이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도록 허가받은 때는 1974년이었다. \*

## 칠레의 젊은이들이 수많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함

안데스 벨리 시티의 타일 깔린 보도 옆에 사람의 키보다 더 높은 주황색의 벽돌담이 뻗어 있다. 환 칼로우스 루이스 마티네이스……선교사들이 부르듯이 루초라고 하자……는 구도자들을 찾아서 이 벽을 끼고 걷고 있다.

그는 “여보세요, 여보세요”하고 부른다. 그 집의 아낙네가 하던 일을 멈추고 나서 보니 13세쯤 된 소년이 진지한 표정으로 미소를 머금고 자기 마음을 어떻게든 그대로 표현해 보고 싶다는 표정으로 서 있다.

루초는 이웃에 사는 12세에서 23세 사이의 청소년과 젊은이로 구성된, 25명의 회원 선교사 중의 한 사람이다. 그들은 구도자 가족을 찾아 필름스트립을 보여 주고 우정을 증진시키어 선교사들과 공부할 준비를 갖추게 해준다. 칠레 산티아고 노스 선교부에서는 지난 6개월 동안 이들의 수고와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수많은 가족이 교회로 들어왔다. \*

## 서울 서 스테이크 대운동회

10월 3일 개천절을 맞아 서울 서 스테이크에서는 시내 서대문에 위치한 인창 고등학교에서 연례 대운동회를 개최하였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이날 모임은 오후 6시까지 계속되었으며, 각 와드/지부 회원들은 소속 와드/지부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경기에 임하였다.

맑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에서 그동안 준비한 응원과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으며, 시합에 임한 선수나 응원하는 회원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열심히 뛰었다. 초등협회 어린이들로부터 어른들까지 갖가지 경기에 참여한 이번 운동회의 종목을 살펴보면 육상과 씨름을 비롯하여 배구, 농구 그리고 캡틴볼 등이 있었다. 경기는 공정한 심판과 정정 당당하고 질서있는 선수들에 의하여 재미있고 흥미 진진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운동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한 와드는 제7와드였으며, 수원 와드가 준우승을 차지하였다. 장려상으로는 방배, 독산, 시흥 지부와 화곡 와드가 차지하였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100m 경주.



## 서울 북 스테이크 초등협회 재능 발표회

불광 지역 초등협회 어린이들 ("서부 이동"을 발표)



10월 10일 오후 3시부터 제6와드에서 서울 북 스테이크 제1회 초등협회 재능 발표회가 개최되었다. 스테이크 초등협회 회장인 진 경미 자매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모임에서 각 와드와 지부 그리고 지역에서 참가한 어린이들은 합창, 무용, 연극 등을 발표하였다. 또한 어린이들이 정성 들여 그린 그림 전시회도 있었다.

제1부 순서 중에서 불광 지역의 어린이들은 "서부 이동"이라는 제목으로 연극을 하였는데 초창기 신앙의 선조들이 겪은 어려움을 잘 나타내었고, 특히 극중에서 목메인 기도를 주님께 드릴 때 잠시나마 참여한 회원들이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제2부에서는 전체 활동으로서 엄마랑 아빠랑 민속 무용을 함께 즐겼다. 초등협회를 상징하는 색깔 중에서 빨강색은 용기, 노랑색은 봉사, 그리고 파랑색은 순결을 나타낸다. 북 스테이크가 조직된 후 처음 갖는 재능 발표회지만 앞으로 더욱 훌륭한 모임을 갖도록 노력할 것을 초등협회 역원들은 다짐하였다. 스테이크 부장단은 이번 모임을 위하여 수고한 스테이크 역원과 와드, 지부, 그리고 지역 역원에게 감사를 드렸다. 참석자 약 200여명.

\*



## 교회 본부 청녀, 초등협회 및 활동 위원회 역원 방문



본부 청녀 회장단의 다거 자매와 통역하는 이 숙자 자매

9월 1일 화요일 교회 본부 청녀 회장단의 알린 비 다거 자매 부부와 초등협회 회장인 드웬 제이 영 자매 부부 그리고 활동 위원회의 패트 데이비스 자매 부부가 한국을 방문하여 특별 역원 훈련 모임을 가졌다. 서울 스테이크 제4 와드에서 가진 이날 역원회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역원 훈련 모임을 가졌고, 이어서 6시 30분부터는 전체 모임을 가졌다. 이날은 평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역원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에 참여하였다. 휴식 시간도 없이 4시간 동안 분반하여 각 조별로 역원 훈련 모임을 가졌는데 청녀, 초등협회 그리고 활동 위원회에 관련된 역원 및 신권 지도자들은 맡은 직분의 중요함과 책임에 대하여 지도서를 참고하면서 상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서울 지역의 많은 신권 역원들과 자매들이 모임에 참석하였다. \*

## 서울 스테이크 알뜰 바자회

9월 26일 서울 스테이크에서는 제4 와드에서 추계 알뜰 바자회를 열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하여 오후 늦게까지 계속된 이번 바자회에는 젓갈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푸짐한 음식과 많은 종류의 의류가 출품되었다. 제1부에서는 완구, 양초 공예품, 테라리움, 붓글씨 작품, 그리고 새우젓 등이 선을 보였고, 제2부에서는 팟죽, 각종 떡과 튀김, 빵, 더너츠, 약과 그리고 건어물 등이 판매되었다. 이날은 또한 스테이크 운동회 예선전이 진행되고 있어서 더욱 성황을 이루었다. \*

## 서울 동 스테이크 중창 대회

서울 동 스테이크는 9월 26일 오후 5시부터 제1 와드에서 와드/지부 대항 중창 대회를 가졌다. 스테이크 활동 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번 모임은 각 와드/지부 아론 신권 및 청녀회와 독신 성인을 중심으로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였다. 예년에 비하여 놀라운 발전을 한 회원들은 창작곡까지 발표하였다.

이날 시상식에서 먼목 와드가 장려상을 받았고 우수상은 청량 와드가 받았으며 최우수상은 창작곡을 발표한 상계 와드가 차지하였다. 참석 인원 약 250여명. \*



## 서울 서 스테이크 대회 (인천 스테이크 탄생)



서 스테이크 대회 광경. 역원 지지를 받은 데릭 장로.

11월 12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제7와드에서 1981년도 후반기 서스테이크 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는 총관리 역원인 로이든 지 데릭 장로가 감리하였으며, 역시 총관리 역원인 기꾸쨌 장로를 비롯하여 지역 대표인 한 인상 장로, 서울 지역의 각 스테이크 부장단, 선교부장단 그리고 이 호남 전 부산 선교부장이 참석하였으며, 많은 신권 지도자와 회원들이 예배당을 꽉 메웠다. 이번 대회는 한국에서 일곱번째인 인천 스테이크를 탄생시키는 경사스러운 대회였다. 그동안 서울 서스테이크는 김 창선 스테이크 부장을 비롯하여 많은 신권 역원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며, 79년 9월 북 스테이크를 조직한 후 2년이 조금 넘어서 다시 인천 스테이크를 탄생시키는 큰 기쁨을 맛보았다. 이날 새로운 인천 스테이크 부장으로 허 채 감독이 부름을 받았으며, 제1보좌로 홍 창석 형제, 제2보좌로 김 창록 형제가 부

름을 받았다. 새로운 부름을 받은 허 채 부장은 15년 전에 복음을 전해 준 선교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고, 데릭 장로는 십일조와 신전 사업에 대하여 말씀하였으며 앞으로 1982년도 말에 세워질 신전에 들어가기 위하여 열심히 준비할 것을 당부하였다.

새로 조직된 인천 스테이크 산하 와드와 지부의 감독과 지부장은 다음과 같다.

① 인천(홍 유남 감독), ② 동인천(신종만 감독), ③ 수원(정 지현 감독), ④ 부평(전 종열 감독), ⑤ 안양(안 승국 감독), ⑥ 남인천(이 태호 감독), ⑦ 주안(김영환 감독), ⑧ 부천(김 영석 지부장), ⑨ 남수원(한상일 지부장), ⑩ 간석(박 동화 지부장) 지부 등의 7개 와드와 3개 지부로 구성되었다. 고등 평의원으로는 이 창용 형제, 김 길성 형제, 박 준성 형제, 신 일동 형제, 이명식 형제, 이 성영 형제, 조 강재 형제가 부름을 받았다.

\*